



알리는 말씀

1. 2027년 1월 우간다 단기 선교팀에 조인할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찬양팀, 특수교사,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소셜워커, 의료봉사팀(한방/양방/치과), 전도단원, 등

장애 관련 소식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Lyft가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Medicaid와 연계한 서비스를 개선한다. Lyft는 Medicaid의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Lyft Pass for Public Funding(LPPF)' 프로그램의 기존 장벽을 없애는 방향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HCBS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예산을 사전에 승인하고 Lyft 이용료를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차량 이용비를 먼저 부담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차량을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발달장애인들이 병원 진료, 직장,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등에 보다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똑같이 달린다

Joy Uganda

날마다 설레야 하고
날마다 울컥해야 하고
날마다 죄송해야 할까?

기계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보일 만큼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허기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만저주심을 기대하고
기도에 반응을 곤두세워도

어쩌면 믿음은
뜨거움보다
이탈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슴은 답답하고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함량부족이라 자책하게 만든다

오늘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오늘은 아무런 뉘우침이 솟구치지 않아도
오늘은 그저 의무방어전처럼 느껴져도,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탈하지 않은 선로 위에서
정해진 시간에
묵묵히 기적을 울리며 달리는 기관사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낸다면,

조물주가 세상을 만드시고
그가 만드신 것들이
날마다 그저 제 스케줄따라 움직이는데

뜨겁게 울고
눈물로 채운 날과
무엇이 그리 다르랴.

‘나는 조물주의 일을 하면서
왜 감격이 없을까’
날마다 자책한다면,

오늘도
똑같이 달렸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조물주는 과연
“참 염치없는 것들이구나”
쫄쫄 혀를 차실까?

그리고 그만큼
그에게 다가갔다.

날마다 선교를 품고 가슴을 쥐어뜯듯 기도하고 눈물을 쏟다가, 그 답답한 마음에 문득 스쳐간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주님의 사랑이 고픈 새벽입니다. 이제 눈물이 마른 이 새벽에도, 나는 그분을 향해 달린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부족해도 기쁨으로 나누며
힘들어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조이우간다 기도문 중에서)

기도제목나눔



1. 조이우간다 파트너 현지 학교선정과 특수교육 교실 건축위해
2. Children's Church 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하도록
3. 27년 1월 선교 동역자를 위해
4. 장애선교 헌신자를 주시옵소서

후원방법

1. Check로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Joy Center, Inc.". Memo: _____
2. Zelle, Paypal, Venmo의 경우:
joycenter@hotmail.com
3. 홈페이지를 통하여
www.joycenter.com

We appreciate your gift of love in support of Jo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501(c)(3).



조이우간다 마침내 희망을 씨를 심는 터를 마련하다



조이우간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 온 농장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후원금에만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간다의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생산하며, 그 열매로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자립의 선교입니다. 그동안 조이우간다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찾아 가 식량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을 가정에서 가르치며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만을 고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조이우간다 역시 어떻게 현지의 힘으로 지속되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며, 장애인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장차 농장에서 얻는 수익이 식량지원과 교육, 장애인 가정의 자립을 돕는 작은 밑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 우리가 꿈꾸는 농장의 모습입니다.

조이우간다 스태프들은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마련된 그 땅에 함께 섰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땅입니다. 스태프들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이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단순히 재산 하나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이우간다가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